

양식장 해양쓰레기 처리 '몸살'

폐어구·비닐 등 연간 3만8000여t 발생 중국 등 외국 쓰레기도...수거는 절반 그쳐

양식장이 밀집된 전남지역에 연간 수만t씩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진철) 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양쓰레기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3만8000여t으로 전

국 15만9800여t의 23.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어구, 로프, 밧줄 등 어업과 항해 과정에서 유입된 해상쓰레기가 3만t, 태풍 등 재해로 말미암아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된 육상쓰레기가 8000t 규모다. 이 가운데 지난해 수거량은 발생 추정량의 53.6%인 2만356t에 그쳐 절반 가량은 바닷가 등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수거된 쓰레기의 65%가량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침체어망, 재해쓰레기 등이 차지하고 있다. 또 쓰레기 처리 방식은 최근 3년치를 놓고 볼 때 ▲업체를 통한 위탁처리 67% ▲소각 19% ▲재활용 9% ▲매립 5%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전체 대비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011년 전국 20개 해안을 조사한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조사지점에 표착한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전체 대비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외국 쓰레기의 96.4%를 차지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전남 진도, 제주, 전남 신안에서는 외국 쓰레기가 각각 30.0%, 27.9%, 20.8%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은 12억원에 불과, 수거량이 절반에 그쳤으며 처리 전용선박, 처리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다. 전남발전연구원 김동주 선임 연구위원은 "수거전용 선박 운영과 연안 종합처리장 확충, 어업용 폐 스티로폼 감응기 보급 확대, 해양 환경교실 운영, 민·관·학·연을 망라한 전담반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올 해님이·해맞이 진도로 오세요

군, 세방낙조 전망대 등 5곳서 행사 다채

진도군이 해님이·해맞이 행사를 세방낙조 전망대(사진), 침찰산 등 5개소에서 연다. 한반도 최서남단에 있는 세방낙조 전망대에서는 31일 오후 4시부터 진도의 전통 민속공연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

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 사이로 온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떨어지는 낙조로 유명한 세방낙조 전망대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곳이다. 진도아리랑, 진도 북놀이 공연

에 이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강강술래 등 전통 민속공연, 달집태우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소원문 쓰기 등이 마련됐다. 새해 1월 1일에는 침찰산 정상에서 신년 기원제를 올리고 전통 민속공연을 펼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보성군수기 배드민턴 대회

선수·가족 1300여명 참가

보성군은 지난 15~16일 이틀간 벌교 제일고등학교 체육관 등 4곳에서 '제7회 보성군수기 및 소설 태백산맥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전남 배드민턴클럽 선수와 가족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혼합 복식 30대~40대 A·B·C·초급 ▲남자복식 30대~60대 A·B·C·초급 ▲여자복식 30대~50대 A·B·C·초급 ▲왕초급 30대~40대 등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결과 보성군 배드민턴 연합회원들의 선전이 눈부셨다.

남자 복식 신인부 우승은 김재환·김중관, 초급 우승은 박영진·송강석, A급 준우승은 노정인·정만 팀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보성군은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125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 9803㎡, 건축면적 51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경기장과 1033석의 관람석, 1500석 규모의 야외무대 등을 갖춘 벌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사랑의 김치 담기'

신안군 인좌면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남현심) 회원들이 최근 '사랑의 김치'를 담고 있다. 회원들은 김장김치 1500포기를 담가 관내 저소득층과 불우가정 등 300세대에 전달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ilee@

'협동조합' 설립 신청 러시

'다문화 협동조합' 등 3개 조합 탄생 ... 20여건은 상담중

지난 1일 발표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전남 도내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던 조직체들이 잇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 시장경제의 새로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공영 봉사단체인 '다문화 협동조합'을 포괄해 모두 3개 조합에 대해 지난 14일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또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의 문의전화나 방문 상담도 20여 건에 이르는 등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협동조합 1호인 '다문화 협동

조합'은 조합원 5명 출자금 70만원으로 다문화가족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도·소매업과 다문화가족 차별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외국어 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다문화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설립철 일자리창출 과장은 "오래전부터 두레와 향약, 등 등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시장경제 도입으로 고유의 미풍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협동조합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거의 가치와 철학이 현재의 경제와 결합,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완도 청산도 '슬로우 걸기 축제'

내년 4월 한달간 열린다

광주일보 주최의 '2012년 광주·전남 대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명품 축제로 자리를 굳힌 완도 청산도 '슬로우 걸기 축제'가 내년 4월 한달간 열린다.

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와 담당급 이상 공무

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청산도 슬로우걸기 축제'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축제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느리게 걷기(緩步), 웃으며 걷기 보편(莞步), 어느새 완보(完步)한다는 '청산완보 프로그램'을 기본

으로 하고 청산도 구들장은 농·어업 유산 지정, 웃음 콘테츠를 활용한 전시 등 공식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2014 국제 해조류박람회'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중식 군수는 "슬로우 걸기 축제는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성공적 축제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슬로시티 청산도의 아름다움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청산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고흥 민·관 함께 저소득층 지원

군, 맞춤형 복지서비스...약사회 등 생필품 전달

고흥지역 민·관이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고흥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중점관리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 304가구를 발굴하고 경제적 형편은 물론 건강상태·생활능력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상세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발굴한 취약계층 가운데 조손가구 아동 34명에 대해 민간단체(어린이 재단)과 연계해 매월 10만원씩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 95가구에

700여만원을 지원, 생필품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지역 민간단체인 고흥군 약사회, 고흥군 김생산 어민연합회, 고흥군 향운노조, 거성건설, 개인 후원자 등이 가전제품, 백미, 이불 등 생필품 138점(930만원 상당)을 후원해 저소득층 105가구에 전달했다.

고흥군 새마을부녀회와 동백회(군 산하공직자 부인 모임), 범외방 동부지역 협의회에서도 김치 3300포기를 담구 노인 요양시설, 저소득층 등 441가구에 전달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NAVER 정남진투어 검색하세요!

Event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항차 *금토장흥/일성산출항 항차는 제외

정남진투어 이용시 20% 항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항까지 버스임대 50% 할인~!!!

선착순 3,00명 (사전예매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 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오렌지호 장흥↔제주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 3일 투어 139,000